

# 수어, 또 하나의 언어





수어, 또 하나의 언어



기 획 | 정희원 · 이승재 · 김아영(국립국어원)  
집 필 | 김아영(국립국어원) · 전북대 21세기 수화연구단  
감 수 | 사단 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삽 화 | 김현주  
디 자 인 | (주)계문사 02)725-5216

발 행 일 | 2014년 8월 31일  
발 행 인 | 민현식  
발 행 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우)157-857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Copyright ©2014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국립국어원 | 2014-04-01  
발간등록번호 | 11-1371028-000519-01

## | 차례 |



01. '수어'가 무엇인가요? .....	6
02. 한국어로 말할 때 사용하는 몸짓(제스처)도 수어인가요? .....	9
03. 한국어 문장에 단어만 수어로 바꾸면 수어 문장이 되나요? .....	13
04. 농인도 청인과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18
05. 농인과 청인이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	22
06. 한국 수어의 발전과 국립국어원의 역할 .....	30
부록   청각 장애인과 대화할 때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	33



# 01

## ‘수어’가 무엇인가요?

### ● 보이는 언어, 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언어가 없다면 어떨까?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물이나 음식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는 소통의 도구가 되며, 정보를 얻고 학습을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게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모어(제1 언어)로 사용한다.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어로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다. 그런데 자라면서 외국어로 배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하는 의사소통은 한국어만큼 쉽지가 않다. 한국어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 세세한 생각과 느낌을 외국어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모어

화자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미묘한 어감 차이, 자연스러운 단어의 배열 등을 외국어로 배울 때에는 익히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처럼 모어와 외국어는 그 언어로 소통을 할 때 느끼는 쉽고 어려움, 소통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이면서 모어가 한국어가 아닌 이들이 있다. 바로 ‘농인(聾人)’<sup>1)</sup>들이다. 청인(聽人)<sup>2)</sup>은 어릴 때부터 귀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들리는 언어’를 모어로 습득한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혹은 아주 어릴 때 청각 장애를 입게 되면 ‘들리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언어’를 모어로 습득한다. 이 ‘보이는 언어’가 바로 ‘수어(手語, Sign language)’이다.

우리 사회에는 수어를 음성 언어인 한국어로 소통하기 위한 보조 수단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 수어는 한국어와는 다른 단어와 문법 체계를 가진 별도의 언어이다. 즉,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아랍어 등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독립된 언어이다.

---

1) 농인은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곧 ‘청각 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로,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담긴 표현이다.

2) ‘농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음성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이들을 수어 사용자인 ‘농인’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다.

## ● ‘수화’와 ‘수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수화(手話)’라는 용어를 널리 써 왔다. ‘수어(手語)’도 ‘수화’와 같은 뜻으로 사용해 왔으나 ‘수화’만큼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수어가 한국어와는 다른 별도의 언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언어의 명칭들이 ‘-어’로 끝나는 것과 대등하게 ‘수화’보다는 ‘수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특히 2013년에 한국 수어 관련 법령 제정을 준비하며 용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수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 법정 용어로 ‘수어’가 선택되고, ‘한국수어법안’이 발의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화’ 대신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 02

# 한국어로 말할 때 사용하는 몸짓(제스처)도 수어인가요?

### ● 수어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내적 문법을 가진 별도의 언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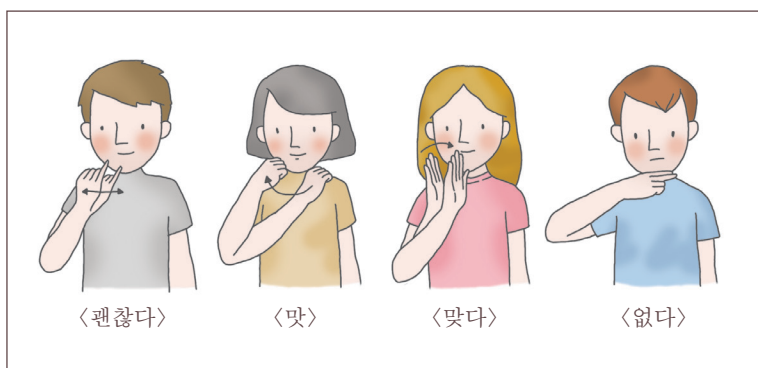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다양한 몸짓(제스처)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그 몸짓은 어디까지나 말하는 내용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즉, 말하는 내용이 없이는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어를 할 때의 손동작이나 몸짓은 단독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몸짓과는 다르다.

수어(手語)는 말 그대로 ‘손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어는 단순히 손동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어는 기본적으로 손과 손가락의 모양(수형), 손바닥의 방향(수향), 손의 움직임(수동), 손의 위치(수위), 표정(비수지 요소)의 다섯 가지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는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모두 의미를 구분해 주는 언어적 요소로

기능한다. 어떤 손 모양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다양한 뜻의 수어 단어들이 만들어진다. 같은 동작이더라도 어떤 표정을 더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턱을 중심으로 한 수어 단어들이다. 그런데 단어에 따라 턱에 위치한 손의 모양과 동작이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괜찮다’라는 뜻의 수어 단어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펴서 손등이 몸 바깥으로 향하게 돌린 후 턱에 가볍게 두 번 댄다. ‘맛’이라는 뜻의 수어 단어는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옆면을 턱 왼쪽에 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맞다’라는 뜻의 수어 단어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접고 나머지 손가락은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워 집게손가락의 옆면을 턱 중앙에 댄다. ‘없다’라는 뜻의 수어 단어는 오른손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접어서 손가락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툇에 댄다. 이처럼 똑같은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동작을 취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만들어진다.

## ● 언어 기호와 의미 사이의 임의성은 수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어에 대해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수어가 단순히 ‘지시 대상을 직접 가리키거나 모방하는 동작’이라는 인식이다. 즉, 수어 동작과 그 뜻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 누구나 따로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 동작으로부터 의미를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음성 언어보다 수어가 훨씬 배우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음성 언어 기호가 갖는 임의성은 수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사과나무의 열매를 가리켜 국어로는 ‘사과’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애플(apple)’, 일본어로는 ‘링고(りんご)’라고 하는 것처럼, 수어도 국가별로 서로 다르다. 한국 수어에서 ‘사과’는 빨간색을 나타내는 동작(오른손 주먹을 쥐고 집게손가락을 펴서 입술 밑을 오른쪽으로 스쳐 내는 동작)과 닦는 동작(모로 세운 왼손 주먹의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닦아 내리는 동작)을 이어서 나타낸다. 반면, 미국 수어에서 ‘애플(apple)’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집게손가락을 구부려 오른뺨에 대고 돌리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만약 수어 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면 이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시 대상을 직접 형상화하는 수어도 있지만, 따로 익히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어 기호가 훨씬 더 많다.

이처럼 언어 기호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어는 어느 언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매우 섬세하고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야만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수어는 그 자체로 내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임을 알 수 있다.



# 03

## 한국어 문장에 단어만 수어로 바꾸면 수어 문장이 되나요?

### ❶ 수어와 국어의 문법은 다르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어의 문법과 영어의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제 어디에 갔어요?’를 영어로 할 때 한국어로 말하는 순서 그대로 영어 단어만 바꿔 넣어 \*‘yesterday where went?’라고 말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한국어와 영어는 문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영어로 하면 ‘Where did you go yesterday?’라고 말한다. 이때 영어로는 의문문을 만들면서 ‘did’를 사용했지만 한국어에는 ‘did’의 역할을 하는 말이 없다. 또 한국어에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어디에 갔어?’,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갔습니까?’처럼 높임법을 구분해서 말하지만 영어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이처럼 간단한 한 문장만 살펴봐도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한국 수어와 한국어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라는 질문을 수어로 표현하려면 ‘계절’-‘좋다’-‘무엇?’처럼 나타낸다. 또한 수어에서는 ‘무슨’, ‘무엇’, ‘어느’를 뜻하는 말이 모두 오른손 검지를 세워 흔드는 동작 하나로 표현된다. 이는 마치 우리말에서 ‘배’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수어에서는 같은 동작을 하면서 표정을 다르게 하면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말과 글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며, 표정이 달라지더라도 말과 글이 동일하면 핵심적인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어에서는 표정이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수어에서 표정은 손의 모양, 손의 위치 등과 같이 언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수어에서 ‘냄새’와 ‘향기’의 수어 손동작 표현은 같지만 ‘냄새’를 표현할 때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향기’를 표현할 때는 상쾌한 표정을 지어 그 의미 차이를 구별한다.

또한 농인들의 일상적인 수어에서 보면 의문문, 평서문, 감탄문의 차이는 표정으로 구별되곤 한다. 이는 국어에서 억양으로 의문문, 평서문, 감탄문이 구별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이다. ‘비가 와’라는 문장을 말할 때 뒤를 올리는 억양이면 비가 오는지 묻는 의미가 되고, 뒤를 내리는 억양이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의미가 된다. 국어에서 이처럼 의미를 달리 해 주는 비언어적 요소에 억양이 있다면 수어에는 표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수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국어는 음성-청각 체계를 가진 언어이고 수어는 몸짓·표정-시각 체계를 가진 언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 ● 농인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와 같다

국립국어원에서 2013년과 2014년에 수행한 농인의 국어 능력 및 문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이/가’, ‘-을/를’과 같은 조사나 ‘-(으)면’, ‘-(으)니까’와 같은 어미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어에서는 ‘조사’ 혹은 ‘어미’라는 문법적 형태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수어에서는 어순 등 다른 언어 요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조사, 어미가 없는 언어인 영어, 중국어 등을 모어로 하는 화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조사와 어미 사용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곧, 수어가 모어인 농인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와 같기 때문에 농인의 국어 능력 및 문해력 조사 결과에서 문법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위의 조사에서 농인들이 사용한 국어 문장을 살펴보자.

‘저는 친구간 이야기해요.’

(‘저는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다 났어요.’

(‘이제는 다 나았어요.’)

‘저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위의 예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수어의 문법 체계가 서로 다르고, 농인들은 수어와는 다른 문법을 가진 국어를 접할 때 외국어처럼



어렵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이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은 어려워하더라도 자신의 모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는 자연스럽게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농인들도 국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수어를 사용하여 활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는 수어가 국어와는 별도의 문법 체계를 가진 또 하나의 언어이며, 결코 국어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 04

# 농인도 청인과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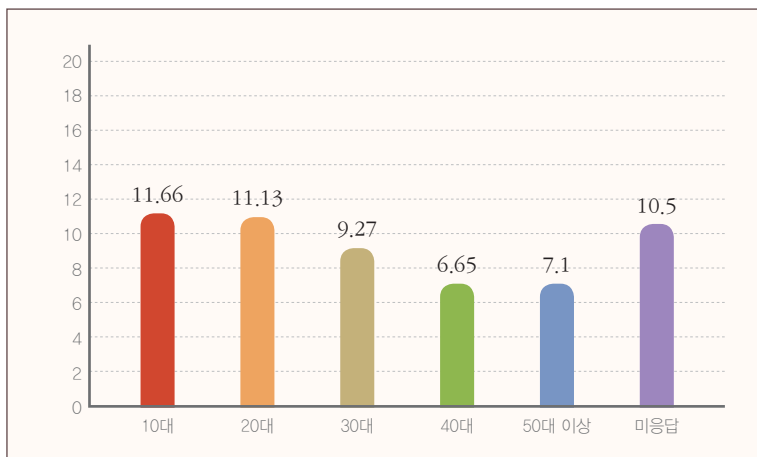
## ● 농인의 문해력 조사 결과

청인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말을 먼저 배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귀로 듣고, 그것을 따라 하며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다. 글은 그 말을 문자로 옮겨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청인들은 글을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농인들은 주변 어른들의 말을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없다. 학교에 다니며 구화 연습, 즉 상대의 입술 모양을 읽고 소리 내어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말을 어느 정도 익힐 수는 있겠지만, 청인들의 말하기와 비교한다면 농인들의 말하기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말하기에 서툰 농인들이 글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 농인들에 대해 말을 하거나 듣기 어려우면 글을 읽고 씬으로써 소통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인들이 국어로

쓰인 글을 읽는 상황은 청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랍어로 된 글을 읽는 상황과 유사하다. 글자 그대로 글을 ‘읽는’ 것을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글에 담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까지에는 청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와 같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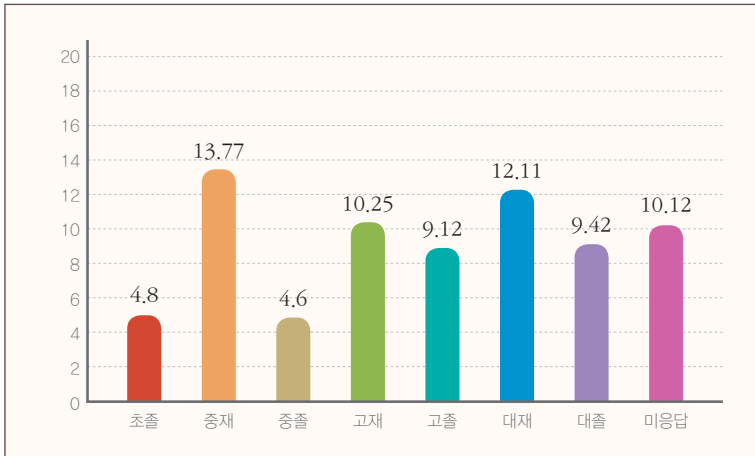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는 2014년에 167명의 농인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농인의 평균 점수는 9.6점(20점 만점)이었다. 학교 성적이 중간에 해당하는 청인 중학생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을 때에는 평균 점수가 16.7점이었다. 농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10.9점이었는데 청인 학생들의 평균보다는 점수가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인의 문해력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문해력 점수

학력별 문해력 점수를 살펴보면 최종 학력이 중재(중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인 경우와 중졸(중학교를 졸업한 응답자)인 경우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 문해력 점수

응답자들의 학력과 연령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중졸 응답자의 대부분이 30~50대로 중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오래되어 국어 교육과 멀어지면서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인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글을 배우고 접할 기회가 많은 반면 농인은 학교를 졸업하면 글을 읽을 기회가 줄어들다. 이처럼 언어적 접촉이 줄어들면 언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에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던 사람도 한국에 돌아와서 꾸준히 그 외국어를 접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청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을 학습해 갈 수 있는 반면 농인에게 국어는 외국어와 같기 때문에 농인을 위한 별도의 국어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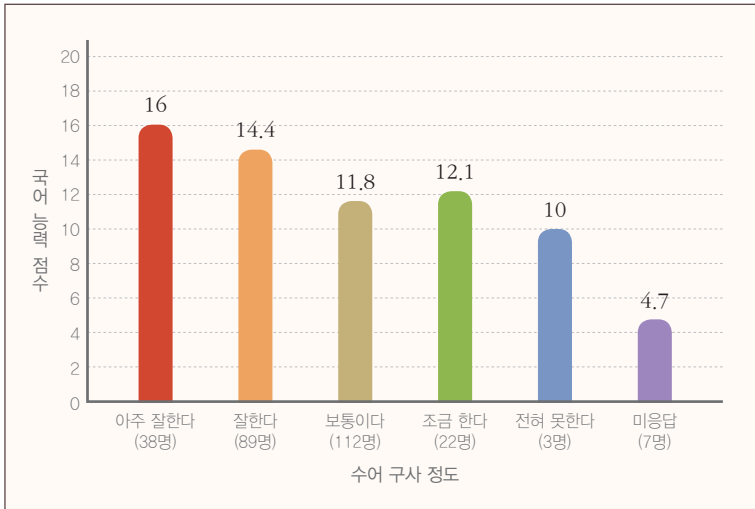
## 농인과 청인이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 ● 수어를 잘하면 국어도 잘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어에 서투르고 한국어로 된 글을 쉽게 읽거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외국인의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모어는 유창하게 구사하고 자신의 모어로 된 글을 보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농인이 청인과 같이 글을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농인의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농인과 청인의 모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농인은 한국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한국 청인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한다.

각각의 언어는 개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보편적인 공통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모든 언어에는 명사와 동사의 구별이 있고, 문장을 만들 때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모어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 언어를 학습할 때 모어에 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된다. 국립국어원(2013)에서 조사한 수어 구사 능력과 국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수어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국어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 구사 정도에 따른 국어 능력 점수

이는 모어(제1 언어) 능력이 다른 언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시 말해 모어 습득이 온전하게 된다면 외국어를 더 쉽게 배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수어를 잘하는 농아동(聾兒童)은 의사소통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는 결국 농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언어 습득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12세 이전이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2세 이전의 아동기에 수어를 모어로 습득하면 이후 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것이 한층 쉬워진다. 그러나 언어 습득에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에 수어를 습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구화<sup>3)</sup> 교육과 언어 치료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결국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농인은 제1 언어인 수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뉴질랜드나 덴마크에서는 농인의 모어를 수어라고 인정하고 뉴질랜드 수어-영어, 덴마크 수어-덴마크어의 이중 언어 교육을 시작했다. 제1 언어인 수어를 먼저 완벽히 구사할 수 있어야 제2 언어인 영어나 덴마크어를 잘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수어는 국어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농인이 수어와 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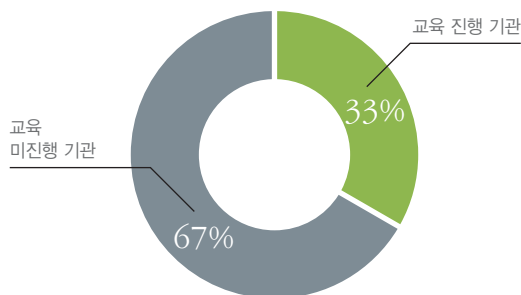
- 3) '구화'는 언어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특수한 교육을 받아 상대가 말하는 입 모양 등으로 그 뜻을 알아듣고, 자신도 그렇게 소리 내어 말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 ● 농인에게 체계적인 국어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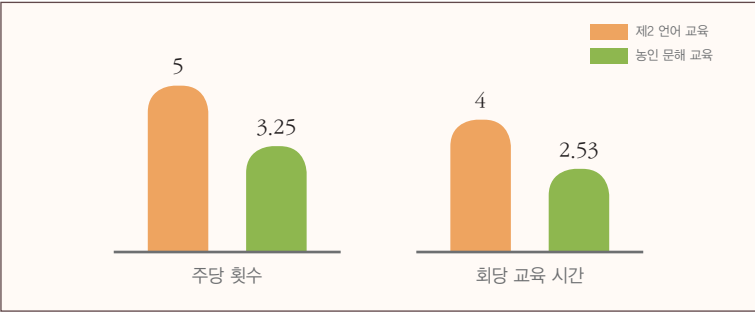
농인은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문제없이 할 수 있지만, 농인과 청인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에서 국어를 모르면 글을 통해 전달 되는 많은 정보에서 소외되기 쉽다. 농인과 청인이 언어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수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농인들이 국어로 된 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인을 위한 체계적인 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4년에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 수화통역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 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전체 185곳 중 61곳에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거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약 33% 정도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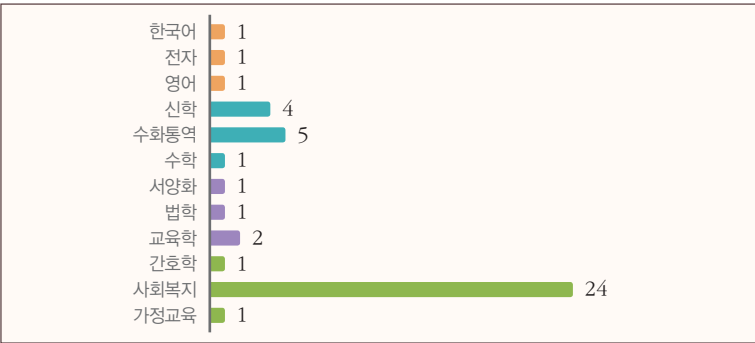
농인 대상 문해 교육 진행 기관

농인 문해 교육 현황과 대학에서 외국인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황을 비교해 보면 횟수와 회당 교육 시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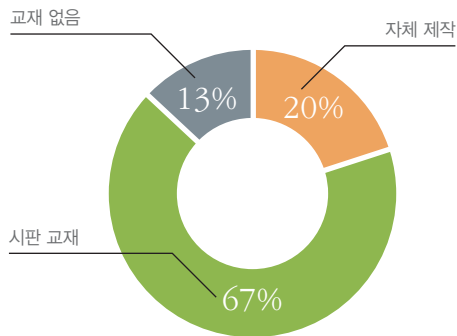
농인 대상 문해 교육 주당 횟수 및 회당 교육 시간

농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이나 수화통역을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언어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자가 무척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교사가 「국어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농인 대상 문해 교육 교수자의 전공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20%이고 나머지는 교재가 없거나 시판 중인 유아용 한글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해 교육의 대상자가 대부분 농인 성인임을 고려할 때, 유아용 교재가 담고 있는 어휘의 수준이나 내용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농인들이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어와 국어의 언어학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해 교육을 시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효과적인 농인 문해 교육을 위해 농인과 수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재의 제작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육성이 필요하다.



농인 대상 문해 교육 교재 사용 현황

## ● 농인은 청인과 동등하게 의사소통하고 싶어 한다

농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국어원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대답이 61%로, 불편함이 없다는 대답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불편함이 없다고 대답한 30%의 응답자는 대화 상대가 주로 농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대화를 주로 나누는 상대를 같은 농인이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농인들은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불편하다고 느꼈고, 국어 사용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국어 인식 질문	응답 항목	응답 수 (271명)	백분율 (100%)
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편 여부	있다	167	61.6%
	없다	81	30%
국어 능력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낀 경우	병원 진료	117	33.1%
	이웃과의 소통	76	21.5%
불편할 때 국어 학습의 필요성	느낌	180	66.4%
	못 느낌	52	19.2%
사회생활에서 국어 사용의 유용성	도움이 됨	119	43.9%
	도움이 안 됨	30	11.1%
국어 공부 지속 여부	하고 싶음	162	59.8%
	하고 싶지 않음	21	7.7%

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농인들의 열망은 크지만 사회 제도적으로 그러한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4조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법의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농인이 청인과 동등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농인의 국어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농인과 농인 사회 공동체(농사회, 農社會), 수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수자, 교재, 교육 프로그램,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06

## 한국 수어의 발전과 국립국어원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0년 이래로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권 보장 및 언어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국 수어 연구 및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2000년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 사업자로 사단 법인 한국농아인협회를 지정하였으며, 2004년 이후 위원회 운영 등 수어 연구·보급 사업은 국가 언어 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어 표준화, 연구, 보급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업의 성과로 《한국 수화 사전》이 발간되었으며(2005년 초판/2007년 개정판), 《한국 수화 사전》의 부록 격으로 일상생활 수화집 총 5권, 법률·교통·정보통신·의학·천주교·불교·기독교·국어 교과·경제·정치 등 10개 분야의 전문 용어 수화집이 발간되었다.

수어 사전 외에도 수어 교재인 《한국 수화》 총 5권을 발간

하였고, 2009년에는 《한국 수화 1》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방송(EBS)과 함께 ‘함께 배우는 한국 수화’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30주 동안 60편을 방영한 바 있다.

또한 발간 부수가 적고 책이 무거워 보급과 휴대가 불편하였던 《한국 수화 사전》을 동영상 웹사이트로 개발하고(2009), 이를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하여(2010)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한국 수화 사전》 동영상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은 책자 보급과 휴대의 불편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동영상으로 수어 단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림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비수지 기호(얼굴 표정 등)를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수화 사전(<http://222.122.196.111/>)에서 ‘사랑’을 검색한 화면

또한 국립국어원은 2012년 이후 수어가 하나의 언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표준 수화 규범 제정에서 나아가 실제로 사용되는 수어를 수집·기록하고 수어 문법을 연구하는 등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수어가 별도의 언어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과 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와 같이 여기는 농인에게 특화된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인과 청인 사이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언어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각종 언어 관련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 에스놀로그(Ethnologue, <http://www.ethnologue.com>)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어, 한국 수어 등 두 가지라고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언어’인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은 쉽고 바른 국어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언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이 국가 언어 정책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의 조사·연구 및 국어 정책 수립·시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어를 언어학적으로 기술하는 연구에서부터 수어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까지 다양한 수어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 부 록 |

# 청각 장애인과 대화할 때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 ▶ 청각 장애인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말이나 행동은 금물입니다.

장애인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대해야 하며, 아주 친하지 않다면 장애와 관련된 사생활에 대한 대화는 피해야 합니다.

### ▶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청각 장애인은 극소수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수어(수화), 글로 쓰기,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하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청각 장애인은 극소수입니다.

### ▶ 청각 장애인은 글로 소통하는 능력의 개인차가 큼니다.

청각 장애인은 개인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가 큼니다. 글로 쓰더라도 명확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대화 중 청각 장애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도 소통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청각 장애인과 글로 대화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씁니다.

청각 장애인과 글로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문해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 청각 장애인과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청각 장애인과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지나치게 입 모양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 청각 장애인의 말을 들을 때에는 경청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청각 장애인의 말을 들을 때에는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청각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색안경,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 표정은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눈을 가리는 색안경, 모자 등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인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은 수화 통역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화 통역사를 통해 청각 장애인과 소통할 때 “이 내용은 통역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청각 장애인에게 통역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수화 통역사에게도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 청각 장애인이 듣지 못한다고 하여 반말,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각 장애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이 듣지 못하더라도 반말, 비속어 등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 청각 장애인과 소통할 때는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합니다.

청각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전화 통화가 어려우므로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자 우편 등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합니다.

※ 참고 자료 : 안전행정부(2014, 1.),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사단 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에 대한 궁금증, 여기에!”

문화 융성으로 가는 첫걸음

# 국어 사랑



국립국어원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